

## 공동체 소식

### ■ 사순시기 안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듯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성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맞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기간 개별적으로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육과 단식 규정은 성당 입구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Rice bowl(하루\$1씩 40일) 가져가셔서 부활전 내주시기 바랍니다.

### ■ 부활 판공성사 및 미사 안내

**3월 31일(일) 미사 전 10시30분~10시55분까지 있습니다.**

미사/성사집전: 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St. Louis(St. Andrew Kim Parish)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하는 동안 고해성사 보시면 됩니다. 성사 보실분들은 성당 뒷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 ■ CRS 2차 헌금 안내

31일(일)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지난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영문/한글번역본)

### ■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 합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캔사스 대교구 주관)

### ■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5시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대표지도사제 : 고훈호 베드로 신부님

회비 : \$350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환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25가정)

### ■ 전례부 회합 안내:

일시: 4월 7일 오후 1시, 장소: 나자렛관

### ■ 예비신자 교리 없습니다.

부활 판공성사 관계로 3월 31일(일) 예비신자 교리 없습니다.

###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115	221	160	117
차 주	118	216	500	121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하나) 김정훈(로베르도)

###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띠노), 김동술(요한)
차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 ■ 애찬 봉사자

금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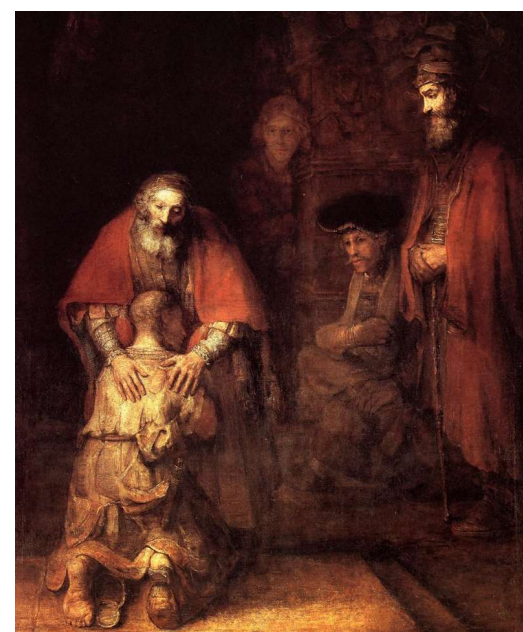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누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아들딸을 사랑의 품으로 받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그림 묵상

돌아온 탕자

“야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 15, 31-32)

그림: 램브란트 하르먼손 판 렌인

제 1 독 서 :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5,9ㄱ.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 답 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17-21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11ㄴ-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 생명의 말씀

## 개안(開眼)의 여정



개안의 기쁨, 개안의 여정입니다. 깨달음의 기쁨,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태생 소경은 우리 눈먼 인간을 상징합니다. 눈이 있다 하여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 뜬 소경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예전에 써놓은 '예수님은 봄이다'라는 자작시입니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 환한 꽃들 피어나고  
봄의 숨결 닿은 자리마다 / 푸른 싹 돌아난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흡사 부활의 봄 같습니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봄꽃들이 환히 피어나듯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린 태생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자 깨달음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갈망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샘솟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자 나를 찾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나의 근본적 갈망입니다. 하느님을, 나를 찾아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광야인생을 압축하는 광야의 사순시기는 집중적으로 주님과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장미 주일이라 일컫는 오늘 사순 제4주일은 태생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 역시 눈이 열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앞당겨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성령의 즐거움을, 영적갈망의 즐거움을 지니고 남은 광야 사순시기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를 보고 알기 위해 있는 눈입니다. 눈이 있어도 주님과 나를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발견과 더불어 나의 발견입니다. 이런 개안과 더불어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이래야 잠에서 깨어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 세상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큰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태생 소경의 개안 과정은 그대로 우리의 평생 개안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심안(心眼)이 열린 그는 '예수님이신 분'에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영안(靈眼)이 활짝 열린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는 결정적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 활짝 눈이 열려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태생 소경입니다.

사순시기뿐 아니라 평생 개안의 여정, 깨달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봅니다.(1사무 16,7 참조)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밖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입니다. 주님을 찾는 개안의 여정에 항구할 때 우리 역시 점차 하느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 만드신 참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수철 신부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원장

# 말씀의 이삭 평신도 사도직의 귀감 장면 요한 박사

최근 서울 종로구청과 운석 장면 총리 기념사업회가 혜화동 로터리에 장 박사의 동상을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제가 밤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것이 1960년 3월 1일 아침이었고, 관훈동 고모님 댁에 들어가면서 인사동 초입 민주당사에 나붙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와 함께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 사진을 담은 선거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주간 토요일인 3월 5일에는 서울운동장 유세장으로 가서 후보의 연설을 들었고, 15일의 3·15 부정선거를 거쳐 4·19 혁명과 26일의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28일 허정 과도내각 출범, 7·29 제5대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 선거, 양원 합동회의에서 8월 12일 윤보선 대통령 선출에 이어 19일에는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국정 책임자로 장면 총리를 인준하는 일련의 바쁜 정치 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1년에 일어난 5·16을 겪은 다음 장 박사 내외분이 가톨릭 학생회관으로 오셔서 미사 참례하실 때 제가 복사를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이 국정을 책임진 국무총리의 직분을 수행했던 장면 박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주로 활동했으면서도 공의회의 정신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일찍부터 살아내신 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특별히 그분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따님인 베네딕타 수녀는 말했습니

다. "나의 오랜 수도생활을 통해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좋은 피정과 양성을 넘어서는 것이 표양이다. ... 우리는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기도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옷을 갖추어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기도하게 했으며,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쳤다. 가난하고 어렵고, 특히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장면 박사는 우리나라 첫 프란치스코 3회원이었고,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는 병상에서 '1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통보를 받고 "이 편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예"라며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운동'에 관한 말과 글과 열성적인 활동을 남긴 그분은 "철저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만년까지 보냈으며, 그 일관된 가톨릭 정신을 현실 정치에까지 적용해 보려 했던 훌륭한 평신도이며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조광 교수)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서울평협 초대 회장을 지낸 현석호 선생은 "정무에 바쁜 중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교회에 나가십니까? 나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하고 으레 말할 정도로 전교에 열성이었다. 그래서 저도 ... 만날 때마다 교회에 나갈 것을 종용당했지만 정무에 바쁜 나머지 차일피일하다가 5·16 후에야 비로소 입교하게 되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복음묵상

